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공활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2월 15일(일) 제1577호

좁은 문, 좁은 길

2월 23일~4월 3일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 오전 5시 30분

2026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2월 23일(월)부터 4월 3일(금)까지 이어진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좁은 문, 좁은 길'을 주제로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 TV 채널에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실황을 시청할 수 있다.

2026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주별로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를 따라 진행된다. 1주 차(2/23~27) '복의 길', 2주 차(3/2~6) '의의 길', 3주 차(3/9~13) '온전함의 길', 4주 차(3/16~20) '기도의 길', 5주 차(3/23~27) '그

나라의 길', 6주 차(3/30~4/3) '십자가의 길'이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캠퍼스를 순회하며 해당 캠퍼스 부목사와 함께 설교한다. 고난주간에는 해외비전교회 담당 목사들이 설교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대학청년부와 차세대가 예배를 주관한다.

고난주간에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예배 전후 침묵으로 기도한다. 교회 로비에 설치된 '회개의 십자가'에 기도제목과 자신의 죄를 적은 종이를 못으로 박고 회개하는 의식도 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제: 자기 부인의 제자도)

2월 18일~4월 5일 '2026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2026 창조질서회복 캠페인'을 실시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제: 자기 부인의 제자도)를 주제로 2월 18일(재의 수요일)부터 4월 5일(부활주일)까지 이어진다. 성인공동체와 대학청년부는 1주차(2/18~21) '디지털 디톡스: 내 손안의 우상을 내려놓다', 2주차(2/23~28) '건강한 식습관: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3주차(3/2~7) '생태 회복: 소 유보다 나눔, 채움보다 비움', 4주차(3/9~14) '바른 언어 생활: 죽이고 살리는 혀의 권세', 5주차(3/16~21) '절제와 성실: 운이 아닌 은혜로 사는 삶', 6주차(3/23~28) '겸손과 순종: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7주차(3/30~4/5) '나를 따르라: 부활의 증인으로'를 주제로 캠페인을 한다. 자기 전 종이 성경책 읽기, 과식 피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남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자리에 끼지 않기, 주식·코인 차트 확인 등 과도한 몰입 멈추기, 나를 위한 지출 줄여 이웃 구제금 마련하기 등을 실천한다.

차세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회복하기'를 주제로 1주차 '디지털', 2주차 '식습관', 3주차 '생태', 4주차 '언어', 5주차 '디지털 미디어', 6주차 '정체성', 7주차 '겸손, 순종'에 맞춰 실천 사항을 행한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SNS 앱 알람 모두 끄기, 탄산음료 대신 물 마시기, 길에 떨어진 쓰레기 3개 줍기, 긍정적인 말하기, 영상 보기 전 성경 읽기 등이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6 이주민 설 집회 개최

2월 14~21일 이주민 720여 명 참석

온누리M미션이 2026 이주민 설 집회를 개최한다. 2월 14일(토)부터 21일(토)까지 각 언어 권별(총 29개)로 연합 수련회와 아웃팅(Outing 나들이)을 한다. 몽골,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온 이주민 720여 명이 참석한다.

각 센터 몽골어 예배는 팀 수양관에서 연합 수련회를 한다. 안산M센터 우즈베크(15일), 열방 YER(15~16일), 필리핀(15~16일), 태국(16~17일), 베트남(16~18일)공동체는 안산M센터에서 설 집회를 연다. 남양주M센터 인도(14일), 캄보디아(15일), 방글라데시(17일)공동체는 남양주M센터에서 예배를 드린다. 남양주 네팔 공동체는 2월 14~15일 Acts29 비전빌리지에

서 수련회를 한다. 김포M센터 차세대는 2월 14일 이주민 설 집회를 한다. 2월 16일 안디옥 인도네시아교회는 안산M센터에서 연합 집회를 하고, 화성M센터 네팔 공동체는 안산지역 네팔연합 집회에 참석한다.

아웃팅도 한다. 서빙고 아랍어예배 총남(15일), 네팔어예배 군포 웰터(17일),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대부도 펜션(14~15일), 군산M센터 열방·라오스예배 전주 한옥마을(17~18일), 화성M센터 캄보디아예배 서울(17일)에서 아웃팅을 한다. 인천 이주민 차세대와 아픈간 청소년들은 SNS청년부와 함께 서울랜드(21일) 나들이를 한다. 문의: 02-3215-3730

2026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좁은 문, 좁은 길



2026. 2.23(월) - 2026. 4.3(금) 오전 5:30

온누리교회 전 캠퍼스 (개인기도 5시, CGN & 유튜브 Live 5:30)



온누리교회 '공동체성경읽기 앱' 출시

공동체성경읽기 앱 '온누리 성경읽기'를 출시했다. 성경읽기 영상과 진도 점검, 알람 기능을 제공한다. 앱을 실행하면 그날 본문에 해당하는 '성경읽기 영상'이 제공된다. '통독 캘린더'로 성경읽기 진도를 점검할 수 있고, '알람 기능'을 설정하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 묵상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온누리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예배에서 '공동체성경읽기'를 하고 있다. 성경 낭독의 전통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높이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 홍하영 기자

강동온누리교회 창립 18주년 감사예배

강동온누리교회 창립 18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2월 21일(토) 오전 10시 30분, 22일(일) 오전 9시, 11시 30분 강동온누리교회 12층 본당에서 진행된다. 주찬양찬양사역팀과 주기쁨찬양사역팀이 특순한다.

강동온누리교회는 2008년 2월 24일에 창립했다.

노희태 목사(강동온누리교회 담당)는 "지난 18년 동안 강동온누리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강동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신앙의 유산을 세워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 박지혜 기자

당회

일시: 2월 28일(토) 오전 6시, 서빙고 비전홀
대상: 전임교역자, 시무, 사역, 협동, 명예장로
안건: 2025년 결산보고, 노회청원 건

제직회

일시: 3월 1일(일) 2부예배 후, 서빙고 본당
대상: 모든 제직
안건: 2025년 결산보고, 노회청원 건

공동의회

일시: 3월 1일(일) 3부예배 후, 서빙고 본당
대상: 18세 이상 세례 교인
안건: 2025년 결산보고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공활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2월 15일(일) 제1577호

좁은 문, 좁은 길

2월 23일~4월 3일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 오전 5시 30분

2026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2월 23일(월)부터 4월 3일(금)까지 이어진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좁은 문, 좁은 길'을 주제로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 TV 채널에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실황을 시청할 수 있다.

2026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주별로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를 따라 진행된다. 1주 차(2/23~27) '복의 길', 2주 차(3/2~6) '의의 길', 3주 차(3/9~13) '온전함의 길', 4주 차(3/16~20) '기도의 길', 5주 차(3/23~27) '그

나라의 길', 6주 차(3/30~4/3) '십자가의 길'이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캠퍼스를 순회하며 해당 캠퍼스 부목사와 함께 설교한다. 고난주간에는 해외비전교회 담당 목사들이 설교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대학청년부와 차세대가 예배를 주관한다.

고난주간에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예배 전후 침묵으로 기도한다. 교회 로비에 설치된 '회개의 십자가'에 기도제목과 자신의 죄를 적은 종이를 못으로 박고 회개하는 의식도 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제: 자기 부인의 제자도)

2월 18일~4월 5일 '2026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2026 창조질서회복 캠페인'을 실시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제: 자기 부인의 제자도)를 주제로 2월 18일(재의 수요일)부터 4월 5일(부활주일)까지 이어진다. 성인공동체와 대학청년부는 1주차(2/18~21) '디지털 디톡스: 내 손안의 우상을 내려놓다', 2주차(2/23~28) '건강한 식습관: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3주차(3/2~7) '생태 회복: 소 유보다 나눔, 채움보다 비움', 4주차(3/9~14) '바른 언어 생활: 죽이고 살리는 혀의 권세', 5주차(3/16~21) '절제와 성실: 운이 아닌 은혜로 사는 삶', 6주차(3/23~28) '겸손과 순종: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7주차(3/30~4/5) '나를 따르라: 부활의 증인으로'를 주제로 캠페인을 한다. 자기 전 종이 성경책 읽기, 과식 피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남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자리에 끼지 않기, 주식·코인 차트 확인 등 과도한 몰입 멈추기, 나를 위한 지출 줄여 이웃 구제금 마련하기 등을 실천한다.

차세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회복하기'를 주제로 1주차 '디지털', 2주차 '식습관', 3주차 '생태', 4주차 '언어', 5주차 '디지털 미디어', 6주차 '정체성', 7주차 '겸손, 순종'에 맞춰 실천 사항을 행한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SNS 앱 알람 모두 끄기, 탄산음료 대신 물 마시기, 길에 떨어진 쓰레기 3개 줍기, 긍정적인 말하기, 영상 보기 전 성경 읽기 등이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6 이주민 설 집회 개최

2월 14~21일 이주민 720여 명 참석

온누리M미션이 2026 이주민 설 집회를 개최한다. 2월 14일(토)부터 21일(토)까지 각 언어권별(총 29개)로 연합 수련회와 아웃팅(Outing 나들이)을 한다. 몽골,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온 이주민 720여 명이 참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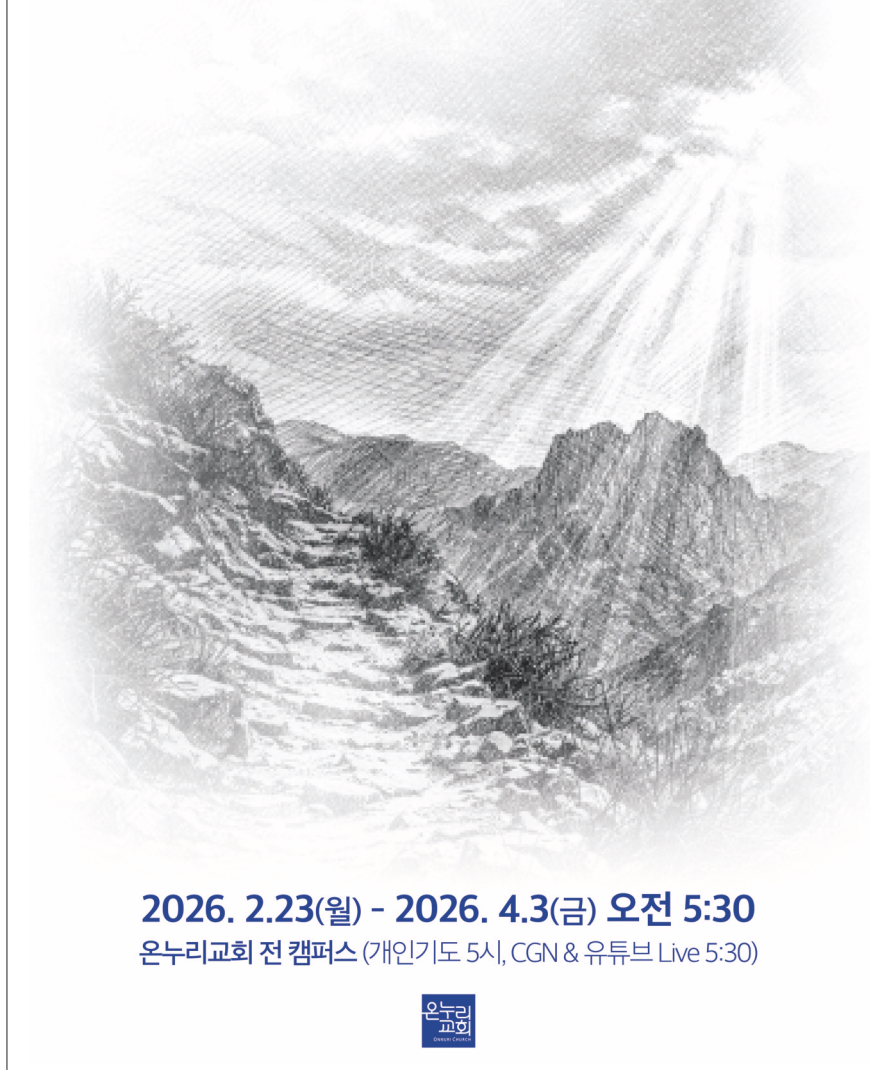
각 센터 몽골어 예배는 팀 수양관에서 연합 수련회를 한다. 안산M센터 우즈베크(15일), 열방 YER(15~16일), 필리핀(15~16일), 태국(16~17일), 베트남(16~18일)공동체는 안산M센터에서 설 집회를 연다. 남양주M센터 인도(14일), 캄보디아(15일), 방글라데시(17일)공동체는 남양주M센터에서 예배를 드린다. 남양주 네팔 공동체는 2월 14~15일 Acts29 비전빌리지에

서 수련회를 한다. 김포M센터 차세대는 2월 14일 이주민 설 집회를 한다. 2월 16일 안디옥 인도네시아교회는 안산M센터에서 연합 집회를 하고, 화성M센터 네팔 공동체는 안산지역 네팔연합 집회에 참석한다.

아웃팅도 한다. 서빙고 아랍어예배 총남(15일), 네팔어예배 군포 웰터(17일),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대부도 펜션(14~15일), 군산M센터 열방·라오스예배 전주 한옥마을(17~18일), 화성M센터 캄보디아예배 서울(17일)에서 아웃팅을 한다. 인천 이주민 차세대와 아픈간 청소년들은 SNS청년부와 함께 서울랜드(21일) 나들이를 한다. 문의: 02-3215-3730

2026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좁은 문, 좁은 길



2026. 2.23(월) - 2026. 4.3(금) 오전 5:30

온누리교회 전 캠퍼스 (개인기도 5시, CGN & 유튜브 Live 5:30)



온누리교회 '공동체성경읽기 앱' 출시

공동체성경읽기 앱 '온누리 성경읽기'를 출시했다. 성경읽기 영상과 진도 점검, 알람 기능을 제공한다. 앱을 실행하면 그날 본문에 해당하는 '성경읽기 영상'이 제공된다. '통독 캘린더'로 성경읽기 진도를 점검할 수 있고, '알람 기능'을 설정하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 묵상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온누리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예배에서 '공동체성경읽기'를 하고 있다. 성경 낭독의 전통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높이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 홍하영 기자

강동온누리교회 창립 18주년 감사예배

강동온누리교회 창립 18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2월 21일(토) 오전 10시 30분, 22일(일) 오전 9시, 11시 30분 강동온누리교회 12층 본당에서 진행된다. 주찬양찬양사역팀과 주기쁨찬양사역팀이 특순한다.

노희태 목사(강동온누리교회 담당)는 "지난 18년 동안 강동온누리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강동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신앙의 유산을 세워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강동온누리교회는 2008년 2월 24일에 창립했다.

/ 박지혜 기자

당회

일시: 2월 28일(토) 오전 6시, 서빙고 비전홀
대상: 전임교역자, 시무, 사역, 협동, 명예장로
안건: 2025년 결산보고, 노회청원 건

제직회

일시: 3월 1일(일) 2부예배 후, 서빙고 본당
대상: 모든 제직
안건: 2025년 결산보고, 노회청원 건

공동의회

일시: 3월 1일(일) 3부예배 후, 서빙고 본당
대상: 18세 이상 세례 교인
안건: 2025년 결산보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오늘 살펴볼 제자는 ‘빌립’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빌립과 관련된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립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함께 벧새다 출신이었기에 그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립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를 부르신 뒤였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빌립을 발견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빌립이 순종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과 가까웠던 나다나엘(바돌로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요 1:43~45). 빌립이 소개한 예수님은 모세와 예언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빌립은 매우 진지하고 이성적인 구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어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열두 제자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에이비 브루스(A.B. Bruce)는 빌립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믿음은 감작스러운 열정이 아니라 충분한 증거를 통해 자라난 확신의 열매이다. 그는 의심이 많은 제자가 아니라 증거를 요구하는 제자였다.”

빌립은 단순히 군중 심리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매우 진지하고 이성적이며 탐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회당에서 가르쳐주는 율법과 예언서를 연구했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메시아를 갈망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단지 감정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의지만으로 따르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를 깨닫고 설명할 수 있는 이성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첫 고백은 “내가 무엇을 보았다”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확인되었다”입니다. 그의 신앙은 말씀

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 미리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분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의 증거와 함께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분명한 근거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열정과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어떠한 진리를 믿고 있는가?’입니다.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는 질문

빌립의 진지하고 이성적인 구도자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때로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시기 전에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5~7절).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그들을 먹이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전에 빌립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빌립에게 보완되어야 할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매우 진지하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으로 탐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거기에 갇혀 버리고 그 너머를 향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의 그 모습을 아셨기에 시험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베드로를, 때로는 야고보를, 때로는 요한을 시험 하셨습니다. 이 상황은 빌립이 훈련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자체는 ‘어디에서’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얼마나 들 것인가’를 계산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 이성적인 계산에 갇힌 현실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질문을 잘 못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계산에 가두고 있는 빌립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의 계산은 정확했지만 한 가지 변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변수입니다. 합리적인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

빌립: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

요한복음 6:5~7, 14:8~11

“우리의 신중한 이성 판단 위에 믿음을 더할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에 의해 세워지지 않고, 믿음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심을 제한하는 불신앙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적인 사고방식은 모든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도전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빌립은 자신의 이성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병이어 기적의 목적은 굶주린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빌립과 같은 계산적인 이성애 갇힌 이들을 깨우치시는 의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나오는 대화

두 번째 사건은 빌립이 나오는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별할 것 같은 상황이라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의 제자가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질문했고, 그다음 도마, 그다음 빌립, 그다음 유다가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질문한 것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표출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으로 내가 지금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어쩌하여 지금은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네가 정말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느냐?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마가 두 번째로 뛰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질문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지는 바로 아버지이시다.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빌립이 세 번째로 끼어들어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빌립의 질문은 베드로와 도마의 질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빌립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빌립의

질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경건한 요청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경건한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빌립의 약점이 있습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듯이, 아버지 하나님도 눈에 보여야 확실하다는 이성적인 계산이 작동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부름, 그 용어 속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며,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교훈 속에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나타났고,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자임에도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빌립의 한계는 이성적, 과학적, 내 눈에 보여야만 확실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성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묻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성이 닿을 수 없는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이성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실패한 제자가 아닙니다. 훈련되고 있던 제자였을 뿐입니다. 빌립의 개성은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계산이 빠른 것입니다. 진지하게 탐구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빌립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구도적으로 찾는 것, 감정적인 신앙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쉽게 ‘아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아멘’ 하면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의 이 정확한 계산 위에 나를 더할 수 있느냐? 너의 계산 위에 믿음을 더할 수 있느냐?”고 믿음의 시험문제를 내십니다. 우리의 신중한 이성 판단 위에 믿음을 더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에 의해 세워지지 않고, 믿음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성 발렌티누스는 누구였을까?

대화 중 누군가가 “발렌타인데이는 어디에서 유래했나요?”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매년 2월 14일이면 우리는 카드를 주고받고, 촛불이 켜진 저녁 식사를 하며, 특별한 순간들을 나누는 방식으로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한다. 오늘날 이 기념일은 주로 낭만적인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그 기원은 한 기독교 성인을 기념하는 축일이었다.

성 발렌티누스의 생애에 관한 몇몇 세부 사항은 확실하지 않다. 역사가들에게 어려운 점은 초기 기독교 문헌들이 2월 14일에 사망한 서로 다른 세 명의 ‘발렌티누스’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핵심적인 두 명의 발렌티누스는 동일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승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윤곽에 대해서는 공통된 합의가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가 성 발렌티누스가 누구였는지 묻는다면,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

첫째, 발렌티누스는 로마 재판관의 눈먼 딸이 치유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발렌티누스는 로마 제국이 쇠퇴하던 서기 200년대 중반 이탈리아에서 기독교 사제로 살았다. 당시 로마인들은 이교도였다. 따라서 이교 신들에게 마땅히 드러

야 할 것을 드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행한 사건들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는 일이 흔했다.

발렌티누스는 이교 신들에게 기도하기를 거부했고, 그 결과 ‘아스테리우스’라는 이름의 재판관에 의해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연금 중에 발렌티누스는 아스테리우스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아스테리우스의 딸은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는 예수가 자신의 딸에게 다시 시력을 주실 수 있다면 자신도 믿겠다고 하면서 발렌티누스에게 도전했다. 발렌티누스가 기도하자 아스테리우스의 딸이 치유되었다. 이 기적을 목격한 아스테리우스는 화개하고, 자신의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는 또한 발렌티누스를 비롯해 자신이 가뒀 두었던 모든 그리스도인을 석방했다. 발렌티누스의 생애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기록들이 일치하지 않지만, 이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아스테리우스가 개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록 사이에 완전한 합의가 있다.

둘째, 발렌티누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두 번째 체포되었다. 아스테리우스의 딸이 치유된 이후에도 발렌티누스는 계속 복음을 전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는 비밀리에 기독

교인 부부들의 결혼을 주례하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 행위는 당시 로마에서 모두 불법이었다. 특히 기독 교인들의 결혼을 주례하는 일은 매우 위험했다. 결혼한 남성은 로마 군대에 징집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쇠약해져 가던 로마 제국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발렌티누스는 멈추지 않았다. 한 기록에 따르면, 그는 새로 결혼한 부부들에게 양피지를 하트 모양으로 잘라 나누어 주면서 그들의 서약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은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발렌티누스는 두 번째로 체포되어 당시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클라우디우스 2세에게 보내졌다.

셋째, 발렌티누스는 2월 14일 순교했다. 클라우디우스 2세는 포로가 된 발렌티누스의 매력적인 성품에 호감을 느꼈다. 그의 기독교 신앙에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발렌티누스는 복음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다. 그는 클라우디우스를 개종시키려 했고, 이는 집정관에게 지나친 행동이었다. 결국 클라우디우스는 발렌티누스의 처형을 명령했다. 서기 269년 2월 14일, 발렌티누스는 몽둥이로 잔혹하게 구타당했는데, 죽지 않자 성문 밖으로 끌려가 참수되었다. 교회는 그의

천국 입성을 기념하기 위해 2월 14일을 축일로 제정했다. 이 기념일은 세월이 흐르며 변화했다. 중세의 어느 시점부터 이날은 낭만적인 사랑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1969년 교회는 그의 생애 일부, 특히 두 차례 체포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성 발렌티누스의 축일을 전례력에서 제외했다. 그런데도 종이 하트와 사랑의 상징들은 해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발렌티누스가 처형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가운데 하나가 아스테리우스의 딸에게 보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다시 보게 된 그녀의 눈에는 편지 끝에 적힌 그의 서명이 보였을 것이다. 그 서명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발렌티누스로부터.”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가 성 발렌티누스는 누구이며, 왜 우리가 2월 14일에 그를 기념하는지를 묻는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
“발렌티누스는 로마 재판관의 눈먼 딸이 치유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발렌티누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두 번째 체포되었다.”
“발렌티누스는 2월 14일에 순교했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전도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가가는 ‘복음 전도’



주성대 장로
(동대문중앙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대표장로)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역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말한다. 씨를 뿌리는 이도, 물을 주는 이도 필요하다. 하지만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기기에 전도의 출발점은 언제나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가 무조건적이고, 일률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섬겨야 한다. 그 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도의 대상자가 가진 세계관을 분별하는 일’이다.

맞춤 진단이 필요하듯 맞춤 전도도 필요하다. 겨울철 정형외과에 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20대 남성이 허리 통증으로 내원했을 때와 70~80대 여성이 같은 증상으로

왔을 때는 진단의 접근이 달라진다. 고령의 여성 환자라면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외상 병력이 없고 단순 요통을 볼 수 있는 증상도 미세한 압박골절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X-ray만으로는 놓칠 수 있기에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할 때가 많다. 환자의 나이와 배경, 기저 질환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다. 골절이 있는 경우 물리치료로 증상이 호전될 수 없고, 오히려 악화할 수 있어서 보조기를 착용하고 안정 가료를 해야 한다. 즉, 치료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처럼 전도도 복음을 전하려는 대상이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질문을 건드리지 못한 채 표면만 맴돌 수 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관은 ‘궁극적 실재는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진리는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전제고, 이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 판단의 뿌리를 이룬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인본주의적 세계관 위에서 있다. 인류의 발전을 낙관하며 과학과 제도의 발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확신한다. 소위 ‘사회적 소수자’를 돕고,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는 법

률과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인간과 사회를 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 사상의 기초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전제가 깔려있고, 하나의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는 자연스럽게 절대 진리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진다. 진리는 상대적이며, 도덕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복음이 전하는 죄와 회개의 메시지는 불편한 것이 된다. 인본주의 세계관은 인간의 문제를 영적 타락이 아니라 제도적 미비로 보고 법과 구조의 개선으로 대체하려 한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분들에게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진리를 상대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질문해야 한다.

“정말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면 옳다는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이 질문들은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토대를 점검하도록 돕는 사랑의 수고다. 전도는 단순한 복음의 전달이 아니라

전제와 전제가 만나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첫째, 나의 신앙과 성경적 세계관이 분명해야 한다. 하나님이 궁극적 실재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타락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확고히 붙들어야 한다.

둘째, 세속적 세계관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의 논리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다. 궁극적 실재에 대한 전제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가 어떻게 인간관과 윤리관으로 이어지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고후 10:5)고 말한다. 전도는 성령님의 역사이다. 성령님이 준비된 마음과 깨어 있는 지성을 사용하신다. 환자를 세심히 진단하듯 변치 않는 복음을 붙들고, 접근은 지혜롭게 해야 한다. 성경적 세계관 위에 굳게 서고 동시에 세속적 세계관을 이해하려는 겸손한 연구와 기도가 우리 안에 깊어질 때 전도는 더욱 분명하고 담대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열매는 결국 하나님이 맺으시리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노치형 목사
(충주로공동체)

2026년 설 가정예배 및 추모예배

가 · 정 · 예 · 배

가정예배 지침

-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예배와 예식> 편에서 “우리나라의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 온 명절과 국경일 등은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배의 계획과 설교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절기에 맞는 예배 자료를 성도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 2) 추모예배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예식이며, 죽은 자를 추억하며 슬퍼하는 추도예배와도 다릅니다. 사랑했던 가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지켜 죽은 자를 경배하는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가족의 사진을 놓고 그리워하며 생전의 좋은 추억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설 가정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눈 뒤 검소한 선물들과 함께 장기자랑을 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가정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새268, 통202).....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요한복음> 8:31~32.....	가족 중에서
설교	하나님의 자유를 꿈꿨습니다.....	설교자
축복의 마음 나누기.....		다같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가며 서로에게 축복의 마음을 전한다.)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새202, 통241).....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하나님의 자유를 꿈꿨습니다

들어가는 말

우리는 언제나 자유함을 원합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유명한 곳을 찾거나, 한적한 곳으로 떠나거

나, 혹은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유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자유함이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선포해 주십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누리는 하나님의 자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과 사랑과 진리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집이며, 내 가족의 집인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 진리의 틀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 틀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방대한 은혜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첫 생명은 ‘죽음이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 시키시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출 14장).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며, 택하신 백성이 자유롭게 살도록 새 일을 행하십니다(사 43장). 나아가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요 1:1~3, 14:6)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로 세워질 때 누리는 하나님의 자유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제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한 가정과 안정된 삶을 꿈꾸며 자유를 찾지만, 현실에는 수많은 방해물이 존재합니다. 자유를 갈구하다 장애물을 만나면 절망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위한 예배와 나눔 같은 시도조차 힘겨

워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되여라,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진리를 알 때 누리는 하나님의 자유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때로 거짓과 편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얻은 작은 자유함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속일 수 없기에 결국 내적 감옥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당장은 불편해 보일지라도 중심은 평안해집니다. 진리를 따라 생각하며 살아감으로 내면의 평안이 커질 때 모든 환경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나가는 말

2026년, 세계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안정’의 기준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받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가 곧 나의 소유임을 믿는 삶입니다. 비록 어렵고 불안정한 시기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십자가 사명을 즐기며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유를 꿈꿨습니다.

추 · 모 · 예 · 배

추모예배 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	<시편> 121:1~8.....	다같이
찬송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새40, 통43).....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대표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역대상 9:33~34.....	가족 중에서
설교	찬송이 회복되는 가정이 누릴 복.....	설교자
찬송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새559, 통305).....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찬송이 회복되는 가정이 누릴 복

들어가는 말

새해를 맞아 저마다 목표를 정하곤 합니다. 재정의 풍요나 관계의 회복, 혹은 성장을 기대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는 올 해 무엇보다 ‘찬송 생활의 회복’을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 받

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사 43:21).

주야로 멈추지 않는 찬송의 회복

찬송을 담당한 레위인들은 성전 골방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렘전 2:9)인 우리에게도 찬송의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은 자연스럽게 입술을 통해 찬송으로 흘러 나옵니다. 비록 지금 세상이 어렵고 마음껏 기뻐하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현실에 침

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메마른 땅에서 싹이 트듯 찬송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1절, 이 찬송의 고백이 밤낮으로 이어져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멈추지 않는

찬송의 회복

레위인들이 제사 드리는 동안 찬송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찬송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과 일터,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속되어 찬송하는 삶이 회복됩니다. <욥기>에서 엘리후는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여소서. 그러면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시 51:15, 57:9).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사가랴의 닫힌 입을 여셨던 것처럼(눅 1:64), 우

리 삶의 중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다시 이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는

찬송의 회복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찬송을 방해합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고, 불평과 근심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내면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문제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끊이지 않는 찬송 생활의 회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나가는 말

우리의 찬송 생활이 회복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과 장소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진정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찬송을 어떤 값비싼 제물보다 기뻐하십니다(시 69:30~31).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주세요!”

제이흙, 온누리울타리 ‘태아 생명을 위한 집회’ 개최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 소속 제이흙과 온누리울타리가 지난 2월 6일(금) 박주민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태아 생명을 위한 연합 기도 및 거리 집회’ (이하 태아 생명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제이흙 및 온누리울타리 리더십, 입양 가족, 봉사자 등 2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 집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박주민 의원이 추진하는 ‘만삭·약물낙태 허용’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게 목적이었다.

‘태아 생명을 위한 집회’에서는 기도회, 시민 발언, 피켓 시위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시민 발언에서는 강은수 목사(제이흙 담당)와 온누리교회 입양 가족들이 발언했다. 입양 가족 대표로 김영석 팀장(제이흙), 오창화 팀장(온누리울타리), 이혜진 성도(제이흙, 입양모), 김나겸 어린이



지난 2월 6일 열린 ‘태아 생명을 위한 연합 기도 및 거리 집회’.

(제이흙, 입양 아동), 유보연 성도(제이흙, 입양모)가 목소리를 냈다.

한편,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사장 이재훈 목사)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국회 앞에서 ‘태아생명보호 피켓 시위’를 열고 있다. 지난해 11월

5일(수)에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지난 2월 11일(수)에는 오창화 팀장(온누리울타리,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이 ‘낙태 합법화 및 약물 도입, 건강보험 적용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입양 아동 간증

저는 생후 4개월 때 입양되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심장에 구멍이 3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지금의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그 구멍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심장은 아주 튼튼해졌고, 매일 신나게 뛰어놀습니다. 저를 예쁘게 키워주신 엄마,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께도 고맙다는

“제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인사를 꼭 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주신 덕분에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아기들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만약 저를 낳아주신 분이 저

켜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아기들도 저처럼 세상에 나와서 엄마와 아빠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분들, 그리고 어른들이 아기들이 저처럼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엄마 뱃속의 작은 아기들도 세상에 나와서 저처럼 생일파티를 하고 싶을 거예요.

/ 김나겸 어린이(입양 아동, 9세)

‘통합선교 리더십 프로그램’ 성료

한국 교회 목회자 및 선교사 등 50여 명 수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통합선교 리더십 프로그램 (IML-KOREA)’이 지난 2월 12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국 교회 목회자 및 선교사 등 50여 명(기본과정 23명, 심화과정 31명)이 수료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교회 담임 목회자와 선교 단체 대표들이 선교 신학을 재정립하고, 성찰적 실천을 통해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옥스퍼드선교 연구센터(OCMS)가 주최하고, 온누리교회와 한국해외선교회(GMF)가 협력했다.

‘통합선교 리더십 프로그램’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진행됐다. 기본과정은 2월 2일(월)부터 5일(목)까지, 심화과정은 2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경기도 이천 마임비전빌리지에서 진행했다.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 참가자 모집

3월 10일~5월 12일 매주 화 서빙고 성가대실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성가대실(구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2월 21~22일, 2월 28~3월 1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로비에서 홍보 테이블을 운영한다. 교육 과정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에서는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와 가족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고,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적 지식을 배운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호스피스 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비는 8만 원. 문의: 010-3412-7966

CGN 주최 특별 세미나 ‘나침반Q’

3월 5일 오전 10시 서빙고 비전홀

CGN이 특별 세미나 ‘나침반Q’를 개최한다. 3월 5일(목)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다. ‘나침반Q’는 성도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더욱 깊이 전하는 강의 프로그램이다. ‘바울로부터’, ‘방주 타GO!’ 등 CGN 대표 콘텐츠와 연계한 오프라인 교육 과정이다. 성경과 역사, 실제 자료를 아우르며 익숙한 성경 본문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한다.

1차 ‘나침반Q’에서는 창조과학

전문가 이재만 선교사가 ‘과학으로 입증하고 성경으로 확인하는 창조의 신비’를 주제로 강의한다. 노아의 홍수와 방주에 담긴 구원의 의미를 과학적, 영적 관점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신청은 3월 4일까지 QR 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참가자 전원에게는 도서 <노아 홍수 콘서트>가 제공된다.

참가 문의 : 02-3275-9303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CGN, 설 특집 편성

CGN TV 채널, CGN 기독교 OTT 풍당 시청

CGN이 설 명절을 맞아 영화와 말씀, 간증과 선교 등 다양한 장르의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2월 14일(토) 오후 1시 20분 ‘아메리카로 오십시오’를 시작으로 2월 15일(일) 오후 1시 20분과 2월 18일(수) 오후 6시 10분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출연자 간증 모음 영상 등을 방송한다. 자세한 편성 내용은 CGN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기독교 OTT ‘풍당’이 론칭 5주년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CGN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을 2월 15일(일)부터 28일(토)까지 ‘풍당’에서 무료로 상영한다. 시청한 후 댓글로 감상평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음료 쿠폰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풍당’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275-9304

한동대학교 박성진 총장 취임

한동대학교 제8대 총장 이취임예배를 지난 2월 2일(월) 오후 2시 한동대학교 효암체플관에서 드렸다. 최도성 총장이 이임하고, 박성진 총장이 취임했다. 이재훈 위임목사(한동대학교 이사장), 장순홍 총장(부산외국어대학교), 김일만 의장(포항시의회), 한동대학교 교직원, 동문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최도성 총장 이임사, 박성진 신임총장 취임사, 감사패 전달 등의 순

서가 이어졌다.

박성진 신임총장은 “한동대학교의 정체성이 창조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길 원한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혁신 세대가 일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플랫폼이 시대정신인 지금,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혁신 세대가 한동대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NGO 더멋진세상 ‘WFK 봉사단’ 파견

NGO 더멋진세상이 ‘WFK(World Friends Korea) KOICA-NGO 봉사단’ (이하 WFK 봉사단)을 파견해 국제개발 현장에서 다음세대 선교 인재 양성에 나선다.

NGO 더멋진세상은 2014년부터 매년 봉사단원 1~4명을 국제개발 현장에 파송했다. 국제개발 현장에서 선교적 제자도를 익히고, 실질적인 사역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었다.

봉사단으로 선발된 단원들은 파견 전 기관의 사역 철학과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전 교육을 이수한다. 현지에 파견되어서는 지부와 협력하며 원주민 교육 및 지역 개발 사업에 투입된다. 올해는 봉사단원 4명이 아프리카 말라위, 르완다, 우간다로 파견돼 1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장로칼럼

어머니의 손맛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설 명절에 고향집을 찾는 것은 어머니를 뵙고 형제들과 우애를 나누는 것이 먼저였다. 식혜와 순두부를 끓이는 가마솥에 불을 때는 것은 언제나 나의 몫이었다.

“울 막내는 불도 잘 때.”

어머니는 아들의 애뜻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 어머니의 손맛이 배어 있는 따끈한 순두부를 만들어 형제들과 김장김치에 싸 먹는 맛, 엿기름 듬뿍 넣어 찜찜한 식혜의 맛을 세월이 흘러간들 잊을 수 있을까.

그 시절 고향집 겨울은 참 추웠다. 어머니의 코끝에는 영롱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는 언제나 추위를 타지 않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추위를 견디면서 기쁜 마음으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손맛을 기다리는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이란 걸 뒤늦게 깨달았다.

설날 아침은 설레고 기뻐다. 온 가족이 설빔을 차려입고 웃어뜰게 세배를 드렸다.

“고되고 힘들게 살았지만 너희들이 무탈하게 잘 자라서 고맙구나.”

어른들은 덕담하시며 세뱃돈을 주셨다. 부모는 자식들이 쑥쑥 자라서 그 의연함에 뿌듯해하고, 자식은 부모님이 어려운 살림에도 가정을 보살피고, 지탱해 주며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떡국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미풍양속(美風良俗)이었다. 어머니의 손맛과 정성이 담긴 식혜는 웃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하던 가족들을 하나로 묶

어주는 사랑의 줄이었기였다.

설날은 음력으로 쇠는 선달그믐 다음 날이라 크고 둥근 달은 볼 수 없었다. 설날이 지나 정월대보름에 보름달을 볼 수 있었고, 쥐불놀이, 달집태우기를 하며 온 동네에 축제가 벌어졌다. 부럼깨기는 호두, 잣, 밤, 팥콩, 은행 등 견과류를 깨물어 먹었는데 이는 한 해 부스럼을 예방하고, 치아를 튼튼하게 하려는 세시풍속(歲時風俗)이었다. 어머니는 가마솥에 찹쌀과 다섯 가지 곡물을 넣고 오곡밥을 지으셨다. 또 어머니는 장독대에 오곡밥과 나물, 청수물을 떠 놓고 한 해의 풍농(豐農)을 기원했고, 가족들의 건강과 자식의 학업 성취가 되도록 소원을 빌었다.

가족의 추억이 담겨있던 고향집은 지금 빈 집으로 남아있다. 누군가 나에게 묻는 듯싶다. 고향집이 사라지면 사랑의 기억은 어디로 가느냐고.

어느 가을날 나는 고향집 대문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한 시절 소란했던 대청마루, 신발들 어지럽게 굴렀던 뜰방, 삼시 세끼 밥 냄새 자욱했던 연기 나는 굴뚝, 한집에서 함께 살던 가족들의 그리운 시간이 환청으로 마구 쏟아져 내렸다. 인기척은 없어도 사람의 온기는 온 집안 모퉁이마다 스며 있었다. 사랑했던 가족들이 떠난 자리의 흔적은 저 혼자 또렷해지는가. 한 바가지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대면 땅속에서 수도물이 팔팔 쏟아져 나왔다. 수도가 옆쪽으로 감나무 한 그루가 있어 대나무 장대 끝을 벌려 감나무 가지를 끼우고 살짝 돌려 꺾어 빨갭게 익은 감을 따 먹을 수 있었다. 이제는 고향집을 찾아도 고향은 거기 없고, 집으로 돌아오면 고향집은 늘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겨울밤이 많이 춥다 보니 어머니 방에 군불을 든든히 지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마음뿐이다.

사역칼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응원하는
‘다음세대 응원단’이태열 장로
(차세대사역본부 대표장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대전 배재대학교가 온누리교회 차세대의 합성과 눈물의 기도로 뜨겁게 달구어졌다. ‘2026 PASSION(패션) 집회’는 2박 3일씩 총 2차례(1차 1/30~2/1, 2차 2/1~3)에 걸쳐 진행됐다. 2,300여 명의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참여해서 영적 축제의 장을 열었다. 나는 이번 캠프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됐다.

이번 집회는 차수마다 쉼 없는 찬양과 말씀,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간증이 이어지며 영적인 에너지가 가득 찼다. 집회의 영적 동력이 된 찬양팀 ‘파워스테이션’과 ‘시선(SeeSun)’팀은 파워웨이브 학생들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이끄는 통로로 쓰임 받았다. 밴드를 담당하는 파워스테이션과 영상 촬영, 송출 및 유튜브 관리를 도맡은 시선팀은 모두 20대 청년들 3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자신들의 은사와 열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

특히 이번 집회는 대학청년부 자원봉사자 모집을 시작한 지 단 5분 만에 마감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과거 파워웨이브 출신이었던 선배들이 이제는 ‘다음세대 응원단’이 되어 후배들을 위해 2박 3일 동안 온몸을 던져 섬기는 모습은 세대를 잇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다.

흔히 리더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온누리교회 장로들과 성인공동체는 이번에도 기꺼이 아이들의 등 뒤에 서기

로 했다. ‘Unshakable(흔들리지 않는)’이라는 주제처럼,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도록 돕는 ‘조력자’가 된 것이다. 서대문, 마포, 동대문중앙공동체 등은 소속 공동체 차세대 자녀들의 캠프 참가비 50%를 지원하며 다음세대 세우기에 앞장섰다. 이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배려이자,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다.

약 50명의 차세대를 섬기는 장로로 구성된 ‘다음세대 응원단’은 몽골에서 온 17명의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들인 하랑센터 8명, M센터 23명 등 처음 캠프의 문을 두드린 48명 친구의 참가비를 후원하며 사랑의 응원을 보냈다. 장로들은 1차와 2차 집회 기간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아이들을 격려했다. 특히 추운 날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과 호떡 푸드트럭은 단순한 간식을 넘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고 응원한다”는 기성세대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해주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캠프 비용이 증액되는 현실에서 공동체와 장로들이 보여준 힘찬 응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섰다. 차세대 사역본부를 섬기는 장로로서 나는 이번과 같은 응원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였음을 확인한다.

2박 3일 여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갑옷을 입은 2,300여 명의 차세대들은 이제 각자 학교와 가정이라는 선교지로 돌아갔다. 이들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 ‘다음세대 응원단’은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날도록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든든하게 밀어주는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신앙에세이

늘 은혜가 흐르고, 다시 일으켜 세운다!

김성욱 목사
(북누리공동체)

‘오병이어’ 사역은 매주 천 원을 받기 위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던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시작되었다. 겉으로 보면 몇 푼의 돈을 받기 위한 걸음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돈보다 절실한 이유가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주고, 잠시라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그 원원은 그저 지원금이 아니라,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확인을 얻기 위한 작은 통로였다. 교회는 그 걸음을 ‘돈을 받는 자리’가 아닌 ‘복음을 받는 자리’로 다시 초대하고자 했다. 그렇게 오병이어 사역이 시작되었다.

지금 오병이어 사역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일, 자장면 한 그릇을 나누며 함께 예배드리고, 자장면을 나누는 자리로 이어지고 있다. 자장면을 나누는 일은 절대 쉽지 않다. 인파가 몰려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고, 사역자들이 뜻하지 않은 말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순간도 있었다. 그런데도 오병이어 사역자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 인내와 겸손이 어르신들의 마음에 닿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풍경이 달라졌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하게 오시기 시작했다. 섬김이 어르신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먼저 변화된 사역자들의 마음이 어르신들의 삶을 움직인 것이다.

오병이어 사역에는 여러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섬김의 사람들이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양육을 맡은 양육자들, 500명이 넘는 성도들을 30개 조로 나누어 돌보는 조장들, 어르신 찬양팀을 조직해 예배를 함께 준비하는 팀원들, 예배와 식사 자리에서 질서를 세우는 수많은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어르신들의 삶 깊은 부분까지 동행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영적 도전을 받는다.

예배를 잘 드리던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을 때면 조장들을 통해 소식을 듣는다. “이번 달은 편찮으셔서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며칠 전 조용히 소천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어르신들의 “아멘”은 더욱 귀하게 여겨진다.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은 작은 부흥 집회를 보는 듯하다. 매 학기 세례를 받는 어르신들이 이어지고, 맞춤형 양육을 마친 뒤 나누는 간증 속 고백과 눈물은 사역자들의 마음을 깊이 흔든다. 사역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룬 고백을 하게 된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오병이어 예배에서 큰 묵소

리로 “아멘”을 외치는 어르신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한다. 어르신들의 신앙은 삶의 끝자락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묻는 살아 있는 질문이다.

오병이어 사역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이자 사역자들을 새롭게 빚어가는 자리이다. 복음은 받는 이의 마음뿐 아니라 섬기는 이의 마음까지 깊고 단단하게 변화시킨다. 자장면 한 그릇, 한 달에 한 번의 예배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어르신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사역자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신다. 이 사역을 통해 복음은 단지 전해지는 말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삶을 비추는 관계 속에서 더욱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배우고 있다. 어르신들은 온 힘을 다해 예배드리고, 사역자들은 마음을 다해 섬긴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오병이어 사역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크리스천을 위한 기독교 OTT

풍당 5주년

엄선된 기독교 영화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애니메이션,
하루를 채우는 데일리 묵상 콘텐츠까지.
6만 5천여 편의 복음 콘텐츠를 '풍당'에서 무료로 만나보세요.

※ 'AI 실시간 자막 서비스'를 통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풍당 5주년 특별 이벤트

생일을 맞은 풍당에서 2주간만 무료로 공개되는 영화 <무명>을 시청하고
댓글로 감동을 나눠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기간 2월 15일 ~ 2월 28일

선물 딸기젤라또 풍당 딥 초코라떼



이벤트 참여 QR